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
		배포일자	2023년 3월 20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자치행정과	담당자	• 자치행정담당 조성훈 ☎440-2421 • 담당자 이금순 ☎440-2422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1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유정복 시장, 군수·구청장 만나 현안 해결에 한 팀 강조

- 새해 첫 정책회의 개최, 군수·구청장들과 소통의 자리 가져 -
 - 오직 인천·시민·미래 위해 한 팀 되어 지혜와 역량 모아 주길 당부 -

유정복 인천시장과 10개 군수·구청장이 계묘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연두 방문에 이은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3월 20일 군·구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군수·구청장과의 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연두 방문 및 군수·구청장협의회에서 전달받은 건의 사항 299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. 또,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, 봄철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등 화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했다.

한편,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지금까지 연두 방문 10회, 정책회의 및 군수·구청장협의회 7회, 「마을 안으로, 시민 속으로」 6

회 등 총 26회에 걸쳐 군·구와의 소통 시간을 가진 바 있다. 시는 그 동안 소통 시간에서 청취한 군·구의 건의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,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2회의 보고회를 개최한 후 64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시와 군·구는 인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끄는 한 팀”이라며, “인천의 현안 해결과 꾸준한 성장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오직 인천, 오직 시민, 오직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”고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7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